

##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황 성 철\*

### I. 머리말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의 존립과 발전은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적 전 과정을 통해서 초창기의 사회복지 선구자로부터 오늘날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는 자신의 실천 활동이 얼마나 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검증하는 일이었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고 인도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활동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복지란 실천학문이 한국에 도입된지 반세기가 지났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이란 주제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기획 주제로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아마도 이러한 주제가 선정되어 다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주제가 시사하는 무게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에 관해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최소한 실천의 성과와 효과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천학문과 실천방법으로써의 한국 사회복지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간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공헌해 왔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주요 이슈와 관

---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련된 문제를 규명하여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해 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사회복지실천이란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적 범위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우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이란 사회복지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회환경의 제 요소에 관여하여 개입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사업실천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임상적 실천과 동의어로 취급되어 주로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실천이론과 모델을 적용하여 개입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체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실천을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미시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 또는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정책이나 제도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입하는 거시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천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필두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일반사회복지 실천, 미시적 실천, 그리고 거시적 실천으로 나누어 주요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실천의 효과성

### 1. 사회복지실천의 본질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학문적인 노력은 Bartlett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Bartlett(1958)은 사회복지실천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가치, 목적, 지식, 인가, 방법 등 5가지로 보았다. Gordon(1962)은 Bartlett이 제시한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하면서 방법을 기술과 개입으로 분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후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에 관한 규명작업은 Siporin(1975)과 Alexander(1977) 등의 학자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는데, 필자는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사회복지의 이념(ideology), 목적

(purpose), 지식(knowledge), 그리고 기술(technology)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실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적 기반아래 인간의 복지증진과 방해요인의 경감과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특정한 실천모델을 응용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는 개입활동으로 볼 수 있다.

### 1) 이념(ideology)

이념은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나타내는 태도나 신념의 체계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키고 사회를 변형시키고자 행동케하는 원인이 된다(Siporin, 1975:355).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인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은 인도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 원칙을 지도하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추출된 것이다. 또한 이념은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계층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사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복지국가 신념을 낳게 한다. 사회복지의 이념은 한 시대의 사회 사상과 정치 및 경제, 철학 그리고 종교 및 관습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이상학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적 다원리즘, 이타주의 등 정치사회사상들이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목적(purpose)

사회복지의 이념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결정한다. Gordon(1962)은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전제에서 제시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사회사업교육위원회(CSWE, 1992: 2-3)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증진과 빈곤 또는 압제의 경감과 제거에 있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4가지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실천 영역별로 세분화된 목표로 분화된다. 예컨대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회복 및 증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들 수 있다. Meyer(1973)는 모든 전문직은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 전문직도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요구와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클라이언트 집단의 요구가 다르듯이 때로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진술은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3) 지식(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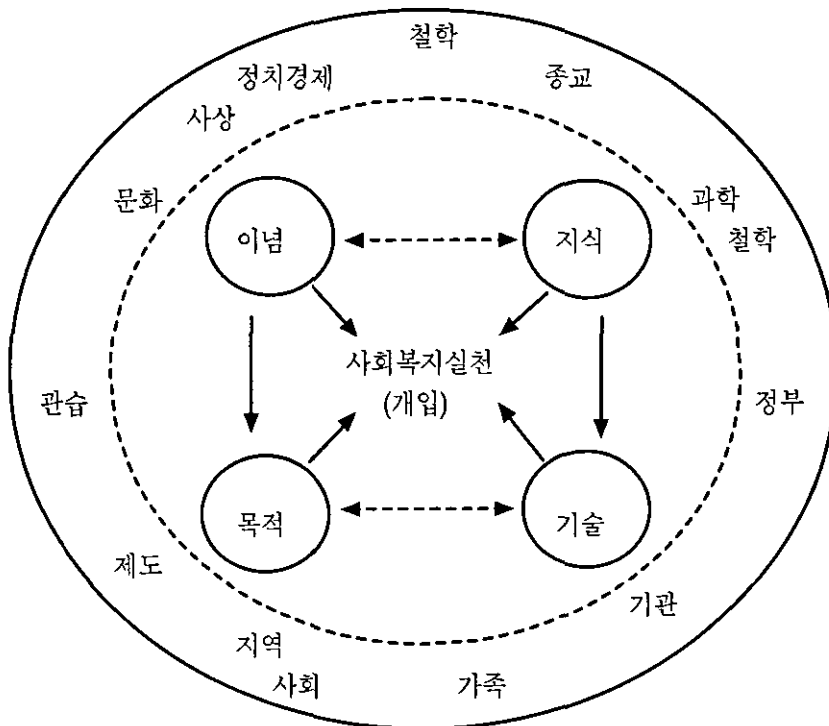
사회복지 전문직은 실천의 기본적인 바탕 구실을 하는 지식의 본체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지식에는 체계화된 지식인 이론 또는 모델과 실천가의 실천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천지혜가 있다. 체계화된 지식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실천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실천모델들이 있다. 자아심리학이론과 갈등이론이 전자에 속하고 심리사회모델과 위기개입모델이 후자에 속한다. 지식산출의 방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정신치료(psychotherapy)의 근거가 되는 정신역동이론은 전자에 속하고 지역사회조직의 3가지 모델인 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모델은 후자에 속한다. 지식을 얻는 방법에서 전적으로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한정한다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실천지식은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성격의 실천지혜(practice wisdom)도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지식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과학철학이다. 경험주의(empiricism)를 대표하고 과학철학의 현대적 형태인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가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서 현재 학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4) 기술(Technology)

기술이란 실천가들이 사회복지실천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리된 지식을 활용하며 클라이언트 체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말한다(Souflée, 1993:320). 따라서 기술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사회복지와 관련 학문 분야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은 직접적으로 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면접의 기술과 가족조각 기법 등은 주로 미시적 실천의 기술에 해당하고, 위원회결성과 슈퍼비전의 기법 등은 주로 거시적 실천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기술과 기법은 해당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특성, 기관의 방침,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사용방법과 적용의 범위를 달리한다. 예컨대, 미국의 정신의료사회사업가는 DSM-IV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회사의 요구와 Medicare의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그것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복지실천 즉 개입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복지의 이념, 목적, 지식, 기술이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념이 목적을 규정하고, 지식은 기술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념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 사상과 철학 그리고 종교와 관습에 의해서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목적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므로 그들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도 사회복지의 이념과 목적에 알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실천을 위한 기술과 기법 또한 실천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상호간의 관계도 투입과 산출에 따른 피드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식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는 과학철학과 기술의 활용방법을 결정하는 정부와 기관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의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다. 한 시대의 과학철학은 또한 그 시대의 정치사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의 제 구성부분간에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관련 체계



위의 그림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이념, 목적, 지식, 기술 등이 상호 어떤 관계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상위체계의 복잡한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실로 사회복지실천이란 복잡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개입활동이란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천의 효과성을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분석의 틀 구실을 한다.

## 2.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있게 대답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질문에 선뜻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관측과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답을 하는 또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의 확대와 축소를 주장하기 위한 이유로 답을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인도주의 철학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로운 활동이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개인적인 판단과 가치 또는 이념이 내재된 진술과 답변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두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이란 자체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접 사회과학적 이론을 비롯한 수 많은 실천모델들과 함께 무수한 실천 기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체계이므로 이를 하나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보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라는 총체적인 질문은 체계적이거나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과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과학이나 해석과학의 접근으로 어느 정도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적 또는 해석학적 접근은 주관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연구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실천도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 구현과 근본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답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 객관

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하려면 실천의 이념과 목적에 관련된 요소를 배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과 기술은 일단 효과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개입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가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라는 총체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복지실천활동 가운데에서도 이념과 목적의 요소가 포함되는 부분은 가치판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천모델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기술이 어떤 유형의 클라이언트 체계에 개입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학과와 실무계를 망라하여 어떤 실천을 위한 이론 또는 모델이 어떤 클라이언트 체계(개인, 집단, 가족,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가에 관한 진지한 연구와 조사는 희박한 실정이다. 물론 특정 실천모델을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는 많으나 체계적으로 실천의 효과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20여년 동안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 수많은 학자와 실천가들이 이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메타분석을 비롯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 축적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구별하고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일반사회복지실천과 미시적, 거시적 실천으로 나누어 관련되는 이슈와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다.

### Ⅲ. 사회복지실천방법의 효과성과 주요 과제

#### 1. 일반사회복지실천(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이론의 개발과 적용을 조망해보면 대체로 두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각 실천 영역별로 전문화된 실천이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실천방법이 소개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는 몇 해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련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등이 최근 2~3년 동안 형성되어 현장과 연계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 근래에 와서 한국

사회복지학과와 실무계는 통합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이에 관한 연구와 실천현장에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 통합방법론은 전문화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양 방향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통합방법론은 일반사회복지실천의 별칭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적인 기반과 특성에 기초하여 모든 대상체계에 개입하여 활동하는 실용사회복지사(utility worker)의 활동을 지도하는 이론이다. 서구에서 일반사회복지실천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실천방법이 그 영역별로 세분화 또는 분리가 심화되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전통적인 3대 실천방법론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갖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오세란, 1995 : 314-318). 그래서 최근 미국의 사회복지교육은 학부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석사과정(M.S.W.) 1년차에서도 교과과정이 일반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일반사회복지실천 이론 또는 통합적 방법론의 모델에는 대표적으로 4체계 모델, 단일화모델, 문제해결모델, 생활모델 등 네가지가 소개되고 있다(김용일 외, 1995: 124-128). Pincus와 Minahan에 의해서 제시되는 4체계 모델은 체계이론적 개념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시켜 개념적 틀을 구성한 실천모델로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입의 대상체계로 보고 다양한 원조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체계이론을 적용한 실천모델은 인간과 사회환경을 보는 시각(perspective)을 제공할뿐 구체적인 개입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4체계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어 특정 클라이언트 체계에 어떤 변화를 유발시켰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사 연구는 전무하다. 단일화모델, 문제해결모델, 생활모델도 마찬가지다(황성철, 1998:19). 일반사회사업실천 이론 또는 모델들은 기본적인 이론구성, 개입의 초점, 실천과정, 사회복지사의 기능 등의 제 측면에서 약간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실천기법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대상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회복지실천의 도입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특정한 실천영역에 적용했을 경우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조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생활모델(life model)은 그 이론적 구성의 탁월성으로 현장의 실천가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사례연구 등을 통한 효과성이 입증되어 보고되고 있다(Germain, 1985: 30-55).

일반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복지학과와 실무계가 당면한 과제는 우선 일반사회복지실천 모델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다. 사실상 국내에 소개된 일반사회복지실천 모델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연구와 교육없이 이러한 모델이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다음, 실제로 어떤 모델을 중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기술이 어떤 대상체계에 적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복지실천의 방법으로 서구에서 경험적으로 그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된 모델은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갖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대변인 역할을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다(양옥경 외, 2000: 238). Rubin(1985)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67개 학술지의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시도했던 조사연구 가운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한 엄격한 경험적 조사연구의 기준에 부합되는 12개의 효과성 조사를 메타분석(meta-analysis)한 결과,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실천의 증거를 나타내는 실천방법은 사례관리실천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관리가 신체 및 정신 장애인과 허약한 노인 등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갖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했을 때 효과적인 이유는 적극적인 사례발굴(outreach), 지역사회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대변인 역할, 서비스의 점검과 지속적인 서비스의 사후평가 등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실천기능을 포함하는 기술과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도 최근 사례관리모델이 소개되어 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재가복지, 의료사회사업, 부랑인보호, 탈북자보호 등 다양한 실천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황성철, 1995: 275-304; 민현순, 1997; 엄명용, 1999: 271-306). 그러나 문제는 사례관리를 여전히 개별사회사업(Casework)의 아류로 보고 실천의 효과성을 단순히 개별적인 사례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관리가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특정한 한국적 실천모형과 기법을 다른 실천방법과 비교 연구하는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토착적인 사례관리의 실천모형이 효과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시적 실천(Micro Practice)의 효과성

미시적 실천은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사회복지사의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시적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대면관계(face-to-face relationship)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상담과 치료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체계이기 때문에 임상적 실천(clinical social work practice)이라고 부른다. 미시적 또는 임상적 실천의 뿌리는 개별사회사업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까지 개별사회사업의 효과성 문제가 학계나 실무계의 공공연한 이슈가 되어 검토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73년 Fisher(1973: 5-20)가 개별사회사업은 그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클라이언트 상태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효과성 논쟁은 시작되었다.

Fisher가 행한 11개의 기존 개별사회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의 메타분석에 이어 Wood(1978: 437-459)의 22개 조사연구의 메타분석에서도 전문가의 실천활동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Reid와 Hanahan(1982: 328-340)을 선봉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이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성이 입증되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은 차후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실천방법인 지식의 본질과 범위에 관한 인식론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조사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어 지금까지 그 논쟁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황성철, 1998: 215-245). 결국 효과성 논쟁이 가져온 결실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최소한 지금까지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실천방법의 구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과 조사연구를 접목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경험적 실천운동(Empirical Practice Movement)이 사회복지실천을 과학화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선 Freud의 정신역동이론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장기의 심리치료를 한 경우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충분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집단사회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집단활동의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거나 이완된 구조로 집단을 형성하고 의사소통과 지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업중심모델과 행동수정모델이 여러 형태의 조사연구에서 일관성있게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데, 이 모델들은 단기의 구조화된 개입 방법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업중심모델을 정신질환자나 만성실업자 등과 같은 문제의 정도가 심각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입한 결과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보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가 부여되고 과제 수행의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취약한 과학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취지에서 태동된 경험적 실천운동은 실

상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1970년대 효과성 논쟁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하였다. 경험적 실천운동을 전개한 학자와 실천가들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가는 조사연구자가 되어 직접 자신의 실천활동을 단일사례조사 등을 활용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id, 1994: 165-184). 경험적 실천운동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미국사회복지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첫째, 경험적 실천운동가들은 효과적인 실천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Fisher의 절충적 실천방법(eclectic approach)을 비롯하여 Gambrill의 능력 중심의 실천방법(competency-based approach), Corcoran의 효과적인 실천론과 Reid의 과업중심 모델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경험적 실천론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쉽게 사정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간편사정도구(Rapid Assessment Instruments)를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실천가들이 효과성을 측정하도록 단일사례조사 기법을 확대 적용시키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어 1983년부터 미국사회사업교육위원회(CSWE)는 단일사례조사기법을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현재 한국에서 미시적 실천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방법에 관한 이론과 모델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한국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까지 개별사회사업은 Freud 정신역동이론을 주축으로 하는 심리사회모델이 지배적인 실천방법이었고, 1980년대 이후 미국 유학과 소장학자들에 의해서 점차 새로운 모델이 소개되어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착성의 관점에서 미국 이론과 모델의 한국적 접목에서 보다 신중한 고려와 선택도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론과 모델의 효과성 차원에서 선별적인 도입과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도 경험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과업중심모델과 행동수정모델이 단편적이거나 한국적 상황에도 그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김혜란, 1997: 25-47 ; 허남순, 1998: 399-425). 또한 요즘 유행되는 해결중심실천모델을 단일 사례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려는 시도(김성천 외, 1995: 1010-133)는 권장할만하나 그 모델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더욱 많은 조사연구의 축적물이 쌓일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국 사회복지실천 특히 임상적 실천에 관심을 두는 학자나 실천가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실천이론과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실천 이론과 모델은 개입절차와 방

법, 사용되는 기술,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서 구체성을 결여하므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간편사정도구(RAIs)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실천활동이 단일사례조사의 기법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거시적 실천(Macro Practice)의 효과성

거시적 실천은 조직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계획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이다. 거시적 실천은 다른 여타의 사회복지실천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는 이론과 실천모델의 기반하에서 이루어진다. 거시적 실천은 미시적인 차원인 개인과 집단보다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군집적으로 표출되는 욕구, 문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주로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정책의 영역에서 그 활동이 일어난다(Netting, et al., 1993: 3). 조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실천활동은 기관운영, 수퍼비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위원회 구성과 활동, 자원조달 및 예산 등과 같은 주로 사회복지행정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시적 실천활동은 지역사회 욕구조사, 기관간의 협력관계 형성, 소외계층을 위한 대변, 주민집단의 형성과 행동 등 대개 지역사회조직 활동을 내포한다. 정책 영역에서의 거시적 실천활동은 로비, 정책평가 및 대안제시, 연대관계 형성과 발전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포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거시적 실천은 실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및 모델들이 세분화된 사회복지행정 영역과 지역사회조직 영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효과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적 실천영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보호의 비효과성, 낭비성, 비윤리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확대 정책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용시설이 폭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게 되어 소위 기관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은 조직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윤리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무성, 1999: 7). 따라서 책임성은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가치 기준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 기관행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이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체계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방법으로 기관행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 기술 가운데 프

로그림 작성법에 대해서는 삼성복지재단 등 기업복지재단이 프로그램 공모에 의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행정, 수퍼비전 등 그 밖에 사회복지사들의 행정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이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책임성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가 기관 평가이다. 정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3년에 한번씩 시설평가를 받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기관 및 시설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현재 각 시설별 평가모형과 지표가 개발되어 시행중에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사회복지관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평가모형개발과 실제평가를 시도하였다(변재관, 2000). 사회복지관 평가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평행성 및 지표개발 과정에 참여해 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한국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첫째, 현행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평가의 모형과 지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가질 수는 있지만 평가지표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시범평가에 의한 피드백이 부족하며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각 평가지표간의 가중치 부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 평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다른 기관 및 시설의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가중치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평가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평가지표와 모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검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황성철·원종욱, 1999: 90-91).

둘째, 어떠한 형태의 평가든 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기능 향상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상의하달식의 사회복지기관의 구조조정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서울시는 3년 전 관할 지역내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서울의 사회복지관들은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실적 위주의 파행적 기관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내부적 효과성과 효율성은 뒷전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기관발전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거시적 실천에서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실천의 효과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지역사회조직의 실천 이론 또는 모델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시켜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체제로 규정(최일섭·류진석, 1997: 34-35)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간접적 서비스 기관에서 지역사회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질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천 영역으로 본 거시적 실천에서 학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현장에서 조사 연구가 되었던 부분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이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시범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사무소는 공공복지행정에서 보건과 사회복지의 통합적 모델을 기초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보건복지사무소의 확대 시행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이현송·강혜규, 1997). 특히 사회복지업무의 집중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와 전달체계의 책임성, 신속성, 일관성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성의 감퇴와 더불어 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사실상 전통적으로 보건과 복지업무는 상호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통합에 의한 기대효과를 단시일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모델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동시에 설정하여 시범평가를 했더라면 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 IV. 맺음말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아래 인간 복리의 증진과 빈곤 및 압제의 경감과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이론 및 실천모델을 응용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활용하는 개입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그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이념, 목적, 지식, 기술 등이 상호 결합되어 일어나는 복잡한 활동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고 실천의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천활동에서 이념과 목적의 요소가 포함된 부분은 가치판단적인 성격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분석의 대상을 지식과 기술에 국

한시켜 어떤 이론 또는 모델이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하여 일반사회복지실천, 거시적 실천, 미시적 실천으로 나누어 관련된 이슈와 문제를 분석하였다.

일반사회복지실천 이론과 모델은 현실적으로 검증가능한 개념과 명제를 갖춘 이론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복지실천을 개념화하는 관점(perspective)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절차가 결여된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실천은 원초적으로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효과성의 정도를 검증하기는 곤란하다. 단지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유용한 일반사회복지실천 모델로 자리잡는다. 미시적 실천의 효과성은 실천이론 또는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미국 사회사업실천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시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은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임상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던져진 과제는 학자나 실천가는 자신의 상담과 치료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여야 한다. 거시적 실천에서는 한국사회복지기관의 행정과 지역사회조직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복지기관은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해야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분석이 결여되어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복지실천은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천이론과 모델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학과와 실무계는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준비가 부족하다. 물론 개별적인 연구에서 특정한 실천이론과 모델이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연구도 사례연구에 국한되거나 조사설계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에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메타분석(meta analysis)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실천이론이 적용되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 참 고 문 헌

- 김성천·노혜련·최인숙. 1996.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8호. pp. 101-133.
- 김용일·조홍식·김연옥. 1995. 「사회사업실천론」. 나남출판.
- 김혜란. 1997. “과제중심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위탁보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0호, pp. 25-47.
- 민현순. 1997. 「의료사회사업에서 척수손상자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모형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변재관. 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의 의의와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4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 7-17.
- 양옥경·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엄명용. 1999.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7호.
- 오세란. 1995. “전통적 3대 방법론과 통합방법론.” 남세진 편저.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 이현송·강혜규. 1997.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무성. 1999.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사회복지 책임성과 사회복지조직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2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최일섭·류진석.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 허남순. 1998. “과제중심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5호, pp. 399-426.
- 황성철. 1995. “사례관리의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7호. pp. 275-307.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 모델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충북사회복지연구」, 제 7호, pp. 1-24.
- 황성철·원종욱. 1999.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계량적 분석.” 「사회복지 책임성과 사회복지조직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99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pp. 77-92.



- 황성철. 2000. "재가노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적용과 실천." 최일섭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pp. 65-93.
- Alexander, C. A. 1997. "Social Work Practice: A Unitary Conception." *Social Work*. 22. 407-414.
- Bartlett, H. 1958. "Toward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2). 3-9.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1992.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Undergraduate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 Fischer, J. 1973. "Is Casework Effective? A Review." *Social Work*. 18.
- Germain, C. 1985. "The Place of Community Work within an Ecologic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In S. Taylor and R. W. Roberts. eds.,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ty Social Work*. 30-5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rdon, W. E. 1962. "A Critique of the Working Definition." *Social Work*. 7(4). 3-13.
- Meyer, C. H. 1973. "Direct Services in New and Old Contexts." In A. J. Kahn(Ed.), *Shaping the New Social Work*. pp. 26-5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tting, F. L., Kettner, P. M., & McMurtry, S. L. 1993. *Social Work Macro Practice*. White Plains, NY: Longman.
- Reid, W. J., & Hanrahan, P. 1982. "Recent Evaluation of Social Work: Ground for Optimism." *Social Work*, 27(4).
- Reid, W. J. 1994. "The Empirical Practice Movement." *Social Service Review*, 68(2), pp. 165-184.
- Rubin, A. 1985. "Practice Effectiveness: More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30(6).
- Siporin, M. 1975. *Introduction to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Macmillan.
- Soufèe. F. J. 1993. "A Metatheoretic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8(3), 317-331.
- Wood, M. 1978.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Research Evidence." *Social Work*, 23(6), pp. 437-459.